

# 우리함께 실천해요!

# 새들을 살릴 수 있어요~

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



5x10 그리기

### 그리기

유리창에 5x10 규칙으로 8mm 이상 크기의 점을 아크릴물감으로 그립니다. 건물 실내에 점을 찍으면 외부 풍경의 반사를 막을 수 없기에 반드시 외부에서 합니다.



즐거기

### 즐거기

6mm 이상 굵기의 줄을 10cm 간격으로 늘어뜨립니다. 공동주택 방음벽, 주차장 외벽에 적용하기 좋습니다.



5x10 붙이기

### 붙이기

5x10 규칙으로 스티커를 유리창 외부에 붙입니다. 모양은 상관없지만 자외선과 열에 강한 스티커가 좋으며, 부득이한 경우는 유리창 내부에 붙입니다.



그물망 설치

### 그물망

채광이나 경관확보가 필요치 않는 곳에 적합하며 설치가 간편합니다. 그물망이 유리창과 밀착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창과 최소 5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며, 그물망 줄이 너무 가늘어 새가 엉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

## 하루 2만 마리 새들의 죽음 줄일 수 있습니다



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방안 최선안내서

##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

건물과 투명방음벽 아래를 보면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한 새들의 사체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결과 약 8백만 마리로 하루 2만 마리의 새들이 덧없이 죽고 있습니다.



건물 유리창에 부딪힌 사례



투명 방음벽에 부딪힌 사례

새들은 좋은 시력과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왜 유리창을 피하지 못할까요?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인해 새들은 유리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착각합니다. 따라서 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유리창과 충돌하게 되고,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대부분 폐사에 이릅니다.

## 작은 실천으로 새들 살리기

국민의 관심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새들의 죽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새들이 유리창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5x10 규칙과 예방법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. 주변에서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발견했다면, **페이스북 <야생조류 유리창 충돌>**과 **네이처링(www.naturing.net)**에 공유해주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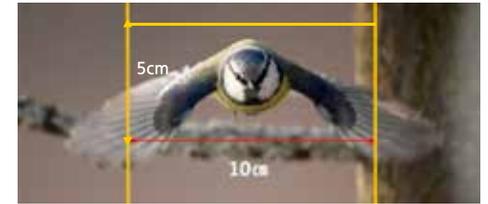
도트형 방지 스티커 부착



격자형 방지 스티커 부착

##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저감하는 5x10 규칙

5x10규칙은 새들이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높이 5cm, 폭 10cm의 틈, 공간을 말합니다.



이러한 새의 시각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유리창에 물감, 스티커 등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표시하면 새들은 자신이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유리창을 회피하여 비행하게 됩니다.

## 유리창 충돌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

### 새로 설치되는 건물·투명방음벽

- **(투명유리 사용 최소화)** 건물벽에 유리 사용을 줄이고, 불필요한 투명 방음벽 설치 최소화 하기
- **(특정 무늬 제품 사용)** 자외선 반사 특수유리나 불투명 소재 유리 사용 하기, 5x10 규칙이 적용된 무늬 삽입, 새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적용하기

### 기존에 설치된 건물·투명방음벽

- **(건물)** 5x10 규칙이 적용된 '조류충돌 방지 테이프' 부착 하기, 5x10 규칙의 패턴무늬 그리기, 줄 늘어 뜨리기, 그물망 등 적용 (뒷면 참고)
- **(방음벽)** 5x10 규칙이 적용된 패턴무늬의 '조류충돌 방지 테이프' 부착하기